

II.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문화의 형성

주제 14) 프랑크 왕국의 등장과 발전

(교과서: p.80-81)

학 교	
학 번	
이 름	

1. ()의 이동

1) () 이동

- ① 원래 갈리아 지방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()은 4세기 후반 중앙 아시아의 ()의 침입을 받아 대규모로 이주
- ② 그 가운데 서로마 제국으로 이주한 ()은 서로마 제국의 용병으로 활동
- ③ 세력을 키운 ()은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를 중심으로 서로마 제국을 공격하여 476년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킴
- ④ 서로마 제국 멸망 전후로 ()의 여러 부족은 서유럽, 지중해, 아프리카 등지에 다양한 국가를 수립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감

2) 게르만 왕조의 수립과 프랑크 왕국



- ① 대부분의 게르만 왕조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고 단명
 - ㉠ 원래 거주지에서 먼 곳에 정착하여 정착지에서 문화적 갈등이 심함
 - ㉡ 사산왕조 페르시아, 비잔티움 제국과 같은 강대국의 근처에 위치하여 세력 신장이 어려웠음.
- ② 반면 프랑크 왕국은 비교적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하면서 발전
 - ㉠ 자신들의 원래 거주지에서 비교적 (먼 거리 / 가까운 거리)를 이동하여 국가를 수립하여 문화적 이질감이 적었음.
 - ㉡ 정착한 지역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안정
 - ㉢ 비잔티움 제국,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비교적 (먼 거리 / 가까운 거리)에 위치하여 외침이 적어 안정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리함.
 - ㉣ 당시 로마인들과 같은 종파의 크리스티교를 신봉(아타나시우스파 크리스티교)하여 로마인들과 갈등이 적었음.
- ③ 프랑크 왕국은 발전 과정에서 당시 서유럽 종교의 수장이었던 ()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였음.

2. 프랑크 왕국의 발전

1) 8세기 이슬람 세력()의 침입 격퇴

- ① 당시 프랑크 왕국의 궁재 ()이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격퇴
(대표적인 전투:)

②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서유럽 세계를 보호.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반도에서 저지

2) 이후 ()의 아들이었던 피핀은 ()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오르려 함

- ① 당시 ()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나 피핀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격퇴
② 피핀의 도움을 받은 ()은 피핀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를 후원
③ 이를 대가로 피핀은 ()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이탈리아 중부지역을 정복하여 교황에게 넘겨줌

3) 피핀의 아들 ()의 활동

- ①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으로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넓혀 이전 서로마 제국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
②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티교를 전파하면서 크리스티교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.

③ ()이었던 레오 3세는 ()에게 서로마 황제로 임명(800)

- ㉠ 프랑크 왕국이 과거 서로마 제국을 대신하는 서유럽의 중심국가로 본격적으로 부상한 계기
㉡ 이를 계기로 서유럽은 (), (), ()를 핵심 요소로 하는 서유럽 문화권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함.
㉢ 당시 서유럽의 ()은 비잔티움 제국 황제보다 정치적인 열세로 인해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음.

4) 프랑크 제국의 몰락

- ① ()가 죽은 뒤 그의 아들들 간의 상속 분쟁으로 제국이 분열
② ()과 ()을 통해 최종적으로 프랑크 제국은 동프랑크 왕국, 중프랑크 왕국, 서프랑크 왕국으로 분열



○ 베르딩 조약

: 카롤루스 대제의 맏아들이 중프랑크 왕국을 다스리고 황제 지위 인정하나 동생들의 동프랑크 왕국과 서프랑크 왕국의 지배 인정

○ 메르센 조약

: 카롤루스 대제의 맏아들이 죽은 뒤 다시 메르센 지역에서 영토 조정을 하여 최종적인 국경선 확립

- ③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유럽 사회는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나타나게 되었음.